

자유를 향한 염원은 ‘아덴만 여명’ 처럼 이루어져야

-13번째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며

지난 11월 13일 오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군 한 명이 군사분계선 넘어 우리 측으로 귀순해 오다가 북한군 판문점 경비대로부터 40여발의 무차별 총격을 당해 이 병사는 여러 곳에 중상을 입었다. 간신히 구출되었으나 집도한 이국종 교수에 의하면 수술 뒤에도 목숨을 구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태다. JSA는 남북회담이 열리는 등 많은 사람이 자주 찾아와 잘 알려진 곳인데 출신성분이 좋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병사가 총격을 무릅쓰고 이곳으로 귀순한 것은 주목되는 일이다.

마침 그 다음 날인 11월 14일 제72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이 주민들의 심각한 굶주림에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다며, 총체적인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하였다. JSA 귀순병사의 수술과정에서도 특히 작은 체격을 가진 이 병사의 배 속에서는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 만큼 많은 기생충에다 옥수수 알갱이가 발견돼 불량한 영양 상태와 열악한 보건체계를 짐작케 했다. 이번 결의안은 2005년부터 13번째 연이은 것이고, 유엔총회에서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은 2012년과 2013년, 2016년에 이어 네 번째로서 다음 달 중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두게 되어 환영할 일이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도 2014년 이후 4번째로 국제형사재판소(ICC)회부 권고를 담고, 작년에 이어 사실상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가리키는 반인도 범죄의 ‘최종 책임자’에 대한 ICC 회부를 촉구했다.

자유를 찾아 탈출하는 비무장 병사에 대해 권총과 JSA내 소지가 불법인 AK-74소총을 난사한 것은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이 지적하고 있는 북한 반인도 범죄의 표본을 보여준 것이다. 독일은 일찍이 통일 후 베를린 장벽을 넘는 동독 주민들을 사살하도록 명령한 동독 지휘라인의 책임자들을 보편적 인권 침해로서 사법 처리했다.

자유를 향한 염원은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석해균 선장을 살렸듯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차별 총격으로 이러한 소중한 열망을 짓밟는 북한의 반인도 범행은 훗날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2017. 11. 16.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번)

상임대표 김 태 훈